



암에 대한 문답

국제세포학회 평의원·의학박사

이 인 성

의학상식의 대중화에 따라 암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보급된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호에는 독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그 상식이 어느정도 정확한 것인가를 직접 테스트 할수 있도록 “퀴즈설문”을 만들어 봅니다. 답을 “옳다”, “틀린다”로 표시한후 맨끝에 있는 정답과 비교하여 맞는 답 하나에 4점을 먹여 채점을 해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.

『설문』

1. 암은 전염한다. []
2. 암은 사람에서도 또 동물에서도 볼수있는 질병이다. []
3. 암은 유전병이다. []

4.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은 독신생활을 하는 사람에 비하여 암에 걸리는 빈도가 낮다. []
5. 암은 각종사망원인중 그 빈도가 제 2위를 차지한다. []
6. 정기검진으로 암을 예방하는데 성공한 것은 여성의 자궁경부암과 남성의 위암이다. []
7. 위암은 장관을 거쳐 직장암을 일으킬수 있다. []
8. 암은 반드시 조기에 발견하여야 치료가 된다. []
9. 암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2주이상 계속될때는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한다. []

10. 영양가가 낮은 음식때문에도 암이 발병된다. []
11. 피부의 “점”은 그 색깔이 진해지든지 또는 아프거나 하지 않으면 과히 걱정할것없다. []
12. 여성의 유암은 가족성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. []
13. 소장암이 별로 없는것은 소장을 통과하는 음식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. []
14. 유암은 대부분이 여성환자 자신에 의해 발견된다. []
15.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암에 걸려 사망한다. []
16. 통증이 암의 초기증세이다. []
17. 직장출혈은 암의 조기증상이 될 수 있다. []
18. 잇몸이나 구강에 잘 맞지않는 의치(틀니)는 불편감을 주나 해로운 것은 없다. []
19. 남성에 흔하던 폐암이 근래에와서는 여성에도 늘어나고 있다. []
20.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피우지않는 사람에 비해 폐암으로 사망하는 위험성이 10배 내지 50배로 높아진다. []
21. 외과적수술, 방사선치료 및 라디옴치료는 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. []
22. 타박상이나 멍든것은 암이 되지

않는다. []

23. 한종류의 암을 앓은 환자는 면역이 되어 또 다른 암을 앓지 않는다. []
24. 현재 암전체의 치료율은 셋중 하나가 낮은 꼴이된다. []
25. 암을 의심할만한 증세 일곱가지를 들어라.

『정답』

1. [X. 틀린다] 암환자와 접촉을 많이 한 사람중에서 그 암이 전염되었다는 확증은 하나도 없다.
2. [O. 옳다] 암은 온갖 생물, 즉 식물에서도 관찰된다. 수천년전에 살던 동물뼈에도 암을 앓은 흔적을 볼수있다.
3. [X 틀린다] 암은 유전병이 아니다. 단지 어떤사람은 암에 더 잘 걸리게끔 즉 감수성이 더 높게끔 태어난다. 어떤 종류의 암(유암, 위암, 직장암등)은 한가계에 더 많이 나타남을 보나, 그것이 유전인자에 의한것이라는 확증은 없다. 만성골수성 백혈병환자의 90%에서 조혈세포염색체에 특수한 변화가 나타나 있음을 보나, 이것이 백혈병 발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직 모른다.
4. [O. 옳다] 미국보건통계국의 조사에 따르면 “결혼한 사람이 독신자보다 암에 걸리는 빈도가 낮다”로 보고되어 있다. 예를들어 여성에서 유암은 기혼녀에서 보

- 다 독신녀에서 훨씬 많이 관찰되며, 기혼녀에서는 임신을 한적이 없거나, 아기에게 자기젖을 먹인 적이 없는 여성에 유암이 더 많이 나타난다.
5. [O. 옳다] 제 1위는 순환기질 환으로 되어있다.
 6. [O. 옳다] 정기검진 스크리닝에 의해서 성공한 예는 구미각국에서의 자궁경부암 그리고 일본에서의 위암이다. 폐암은 성공을 못하고 있다.
 7. [X. 틀린다] 체내에 자라난 암세포는 혈류나 임파관을 통해 다른 장기로 전위된다.
 8. [X. 틀린다] 많이 진행된 암도 잘 낫는 예가 있다. 물론 조기에 발견될수록 치유될 찬스는 더 많다. 이론적으로 말해 모든 암은 완전히 그것을 들어낼 수 있거나 또는 암세포를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하였을때 치유되었다 할 것이다.
 9. [O. 옳다] 암증후 뿐 아니라 어떠한 병증상도 2주이상을 내버려 둘수는 없다.
 10. [X. 틀린다] 음식물이 암을 일으켰다는 확증은 아직 없다. 심한 영양부족이나 담백질 내지 비타민 결핍은 어떤종류의 암에 더 잘 걸리는것이 알려져져는 있다. . .
 11. [O. 옳다] “점”이나 모반같은 것이 갑작스레 커진다든지 색이 더 짙어지거나 피가 날 때는 위험호로 봐야 한다. 그것이 암이 아닐때도 있다. 진찰을 요한다.
 12. [O. 옳다] 유암을 앓은 환자의 근친 가운데서는 걸리는 빈도가 2배로 높다.
 13. [O. 옳다] 소장내용물의 비교적 빠른 이동으로 어떤 섭취된 잠재적발암물질도 신속히 통과시켜 그 작용을 방지한다고 해석되고 있다.
 14. [O. 옳다] 개업의들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90% 이상의 유암이 병원에 오기전에 환자에 의해 발견된다고 한다.
 15. [O. 옳다] 암으로 사망하는 남녀의비율은 55 : 45.
 16. [X. 틀린다] 통증은 암이 상당히 진행한 후에 나타난다. 이것은 (처음에 통증이 없는것은) 1년 1회 검진을 권하는 또하나의 이유가 된다.
 17. [O. 옳다] 직장출혈은 치질의 증상일 경우가 많다. 그러나 치질일것이라고 생각되는것이 직장암일 수도 있다. 직장암은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넷중 셋은 완치된다.
 18. [X. 틀린다] 잘 맞지 않는 “의치”는 구강이나 잇몸을 자극하여 암을 이트킬수 있다.
 19. [O. 옳다] 폐암은 처음에는 남성에서만 나타나 1920 년부터

사망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는데, 여성도 담배피우기를 시작하자 1940년경부터 여성에서도 나타나 서서히 그 수가 상승되고 있다. 폐암은 그 잠복기가 긴것으로 알려져 있다.

20. [O. 옳 다] 이 숫자는 흡연량과 또 살고있는 집단 기타 여러가지 인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. 어떤 한 집단중의 대다수의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그 집단전체의 폐암 사망율은 감소된다.
21. [O. 옳 다] 화학제품이나 특수한 항생물질도 암치료에 도움이 되는것이 알려져 있지만 현재로서 일반적인 암 치료법으로 인정되고 있는것은 외과수술, 방사선 및 라디옴치료이다.
22. [O. 옳 다] 외상이 암을 이르게했다는 것은 알려진바 없다.
23. [X. 틀린다] 신체의 어떤 부위(즉, 피부, 구강 대장, 직장)에 생겨난 암은 그 같은 장기에 2차적으로 암을 이르게 할 가능성이 많고, 쌍으로 되어있는 장기(예를 들어 유방, 난소)에서는 또 다른 한쪽에 같은 종류의 암이 발생하기 쉽다. 암에 한번 걸린 환자가 또 다른종류의 암에 걸리는율이 높은지 낮은지 또는 정상인과 같은지에 대하여는 공통된 의견이 없다.
24. [O. 옳 다] 35년전에는 1 : 5,

30년전에는 1 : 4였다. 이러한 현상은 조기진단 및 치료법의 발전에 기인되는것 같다.

25. ● 비정상적 출혈 또는 분비물.
- 유방이나 띠 부분에 덩어리가 만져질때,
 - 종창이 오래토록 낫지않을때.
 - 지속되는 소화불량 또는 열하곤란.
 - 목이 쉬거나 계속되는 해소(기침).
 - 대변 또는 소변의 형상이 계속 이상할때.
 - 사마귀가 눈에 띄게 커지거나 “점”의 색깔이 갑자기 진해질때.

4월은 보건의달

너도 나도
 검사받아
 숨은 질병
 찾아내자

■ 한국건강관리협회